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보기

돕는 배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 딱 한 군데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짝이 없어서 외롭겠구나 하는 평가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 사실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게도’인데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와는 나의 도우미시요’라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불완전한 남편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남편도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그 에제르가 ‘네게도’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네게도는 남자와 정반대의 모습, 관점, 가치관, 시선, 성향을 가지고 그 남자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대의 모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연합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가슴으로 들어와서 남성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게 해주고, 남성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이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진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가정, 말씀이 흘러내리는 통로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申命記: 두 번째 율법)’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5장과 6장입니다. 5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있고, 6장에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쉐마’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듣고 행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 메시지’ 혹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처음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모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쉐마 메시지

모세가 전한 첫 번째 내용은 여호와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4절).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여호와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와 한 분이다’라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은 ‘여호와’, 한 번은 ‘엘로힘’(우리 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성경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고, 그 위의 선조들이 기도하셨고, 또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 때, 가정에서부터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의 가정에서 대대로 믿어 내려온, 너의 가정을 지켜온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신 6:3-9)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했을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전쟁, 출산, 비, 치료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신이 아닌 여러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삼가 행하여야 할 ‘쉐마 메시지’

선조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기에
그 한분만으로 충분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제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마음에 새겨둔 말씀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가정과 교회 되어야 ”

쉐마의 두 번째 가르침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5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이 명령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자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자리를 짝 치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쉐마의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첫 걸음이 되는 그 마음에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무언가 인생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에 마치 나무를 심듯 그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7절에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곳에서 ‘강론하다’라는 것은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부모가 묵상한 그날의 말씀을 아이들의 영혼에 끊임없이 심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서 자녀들의 영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말씀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배우고 전하라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고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8-9절)고 말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손에 말씀이 쥐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십시오. 직장인이자 직장에서는, 주부라면 가정에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이마’는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생각과 정체성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가정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나가는 곳임을 인식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우리는 세 가지의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은 말씀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백성에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 받은 그 율법을 그들의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승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모든 세대와 족속에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

장애인주일 후기

천국을 경험한 예배

올해 장애인주일에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도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보자는 말이 나왔을 때, 사실 속으로는 왠지 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주일 오후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적은 있긴 한데, 주일예배는 과연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중 화장실에 수시로 가야 하는 지체도 있고, 집중력이 약해서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는데... 기도하자. 올해 1월에 사랑부 역사상 처음 드리는 성찬 때도 은혜 가운데 우리 지체들 잘 드렸잖아. 성찬 중에 왜 난 안 주냐고 더 달라고 소란날까 봐 걱정했지만 그래도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지체들과 함께 3층 예배실에 들어서기까지 불안과 기대, 두 마음으로 속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교사 단톡방에 사랑부 지체들과 교사들이 앉을 본당 좌석배치표가 공유되기 시작하자 다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지체를 명단을 보니 지체들의 평소 예배드린 모습과 그동안 발생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평소 이러이러한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14일 예배 시간에만, 아니 딱 1시간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체들 이름을 한명 한명 짚어가며 탄식에 가까운 절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비장함(?)을 가지고 4월 14일 3부 예배실에 들어가니, 포근한 예배 분위기가 잔뜩 긴장한 제게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주변의 성도님들은 사랑부 기도제목 카드를 보고 기도해주셨습니다. 또,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의 기도문 속에서 ‘사랑부’라는 단어만큼은 청력이 약한 제 귀에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장애인주일 예배를 위해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 전에 부른 찬송곡들도 우리 지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선정해 주신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 3층 예배실에 사랑부 전체가 함께 앉은 모습을 보니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와, 이거 꿈 아니지? 진짜 본당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 맞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며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낯선 예배실의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는지, 예상과 달리 찬양시간에 일어나 춤을 추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평소 예배의 모습과 다른 파격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지체들이 찬양 중에 춤추면 같이 춤추겠다고 하셨던 목사님도 같이 손뼉을 치며 찬양하시는 모습이 살짝 보여 잔잔한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교사들도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이렇게 기쁜데, 사랑부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격해 하셨을지요.

비교적 무사히 잘 끝나간다 하는 찰나에 역시 사랑부가 맞구나 싶게 약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체는 벽

을 치며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지체는 앞전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잔잔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마음조차 다 아시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 사람 마음이 참 간소한 것이,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기까지 왜 20년이나 걸려야 했을까’라는 교만과 서운함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3층에서 예배드린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라고 해맑게 웃으며 기뻐하는 지체들 앞에서 잠시 나쁜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날 설교 말씀처럼 주님께 “고난 중에 제가 무엇을 깨달길 원하십니까?”라고 여쭙보기는커녕 “왜?”, “언제?”만을 따지고 있는 저에 비해, 우리 지체들은 3층에서 예배드린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육신은 약하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시며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부를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배웁니다. ☆

김민정 사랑부교사
jglory718@naver.com



교회소식

이웃사랑섬김후원

교회는 4월 12일 밀알 복지재단을 초청해 주 바라봄기도회에 40일간 함께한 성도들의 이름으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열린교회의 이름으로 레베카(기독교 청년 소비 기업)와 협력해 안양·의왕 지역의 독거노인들께 쌀을 기증합니다.



교회학교 화재대피훈련



교회학교는 4월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별관, 열린빌딩, 세빛빌딩에서 태아부를 제외한 교회학교 9개 부서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교역자와 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피 동선과 행동 요령을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각 예배실부터 대피 장소까지 직접 이동하는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추천도서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

팀 켈러, 캐시 켈러 (윤종석 역)/두란노서원

이 책은 잠언을 ‘시, 퍼즐, 교육, 성경 전체의 일부’라고 소개한다. 이 큰 틀 안에서, 잠언을 한 구절씩 따로 떼어 읽었을 때 해석되지 않던 많은 의문과 구절 간의 모순들을 풀어 준다. 또 개별 구절들을 ‘주제별’로 묶어, 한 해에 걸쳐 특정 주제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런 장치들은 말씀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며, 눈뜨면 맛닥닥리는 현실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오늘을 살게 한다. 실생활에서 말씀대로 살기 버거운 이들, 신앙 안에서 하나 됨을 소망하는 가정, 2인 이상의 소모임 및 교회 공동체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팀 켈러 부부는 잠언의 풍부한 통찰과 예술적인 시어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내 우리를 ‘현실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잠언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잠언을 집필했던 솔로몬조차 끝까지 살아 낼 수 없었던 지체의 삶을 온전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 잠언을 볼드는 목적은, 그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함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더욱 생명력 넘치는 관계를 가꿀 수 있다.

(출판사서평)



새가족



장년

최복기(89)
김건표(66)
조미연(79)
하영식(64)

청년

이리듬(93)
김가영(02)
유수지(00)
고재찬(96)
민서희(96)
김종현(95)
배우진(99)

주요사역

5일(주일) 어린이주일

12일(주일)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식

19일(주일) 스승의주일/성령강림주일/PCM 헌금

6월1일(토)~3일(월) 농어촌아우트리치



시

취기가 오르는 밤 *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간다
무언가에 오래 취해 있으면
그것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는다
창문 위로 흘러내리는 빗방울
투명한 잉크로 말씀을 작성 중이다
식탁 위에 놓여진 낡은 성경책
성경책을 들출 때면 가족가루가 손에 묻어난다
늑둑하게 주름이 잡힌 페이지에서는
끓끓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주방이 정리되어있는 밤 시간대
엄마는 혈관이 팽창한 붉은 눈으로
종이 위의 빨간 글씨를 쫓는 중이다
습한 밤공기 속에서
엄마는 자주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적신다
깊은 눈동자에 구절들을 채우며
고개를 끄덕인다
중얼거리며 따라 읽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식탁의 주황빛 전구
엄마의 그림자를 길게 늘리고 있다
발갣게 달아오른 얼굴로 엄마는
글에 취하고 있다



윤준서 고등부

*엄마가 밤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부터 많이 보았다. 그리고 시를 배우며 엄마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시적이라 생각했고 글로 옮겼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에 빠져살고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무언가에 취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어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 속에서 취해 산다는 것은 엄마를 곁에서 보며 은혜로운 빠짐으로 여겨진다.

어린이회심집회(학부모) 후기

‘40일 기도’의 부스러기 은혜



김다예 장년2교구
rlaek0808@naver.com



“엄마! 오늘 해심집회(?)날이야?” 첫째 서진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었다. 둘째 예진이도 아직 말은 못하지만 오빠를 따라 기대감 넘치는 말투로 웅알거렸다. 연년생 두 아이가 올해 각각 유아부, 영아부에 적응하면서 처음으로 어린이회심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실 아이들을 각 부서에 맡기고 남편과 오랜만에 열린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주말의 햇살도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1층 예배당에서 들리는 찬양소리에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간 열리는 학부모 기도회였다.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전혀 다른 공기를 느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드렸던 장소였는데 분명히 달랐다. 지난 3년 여간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육아의 어려움과 고단함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좋은 핑계거리였다. 힘들고 지쳐 하나님을 찾은 순간은 많았지만 항상 내가 중심이 된 기도를 드렸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나의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명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그리고 여태껏 드렸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터져 나왔다. 아이의 영혼을 위한 첫 기도였다. 아이들의 건강, 미래 등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예배가 끝나고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면서 남편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눴음을 느꼈다. 이후 구역모임에서 학부모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던 중,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게 찾아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무심코 흘러버렸던, 40일간의 새벽에 어둠을 뚫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구역원들과 많은 교인이 있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로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였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역할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닫는다. 기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사무엘이 받았던 여호와와의 은총을 받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어린이회심집회(취학부) 후기

유년부_ 2학년 김웅희



첫 번째 집회(오후집회)를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하지만 두 번째 집회(저녁집회) 할 때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기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에 느낀 느낌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느낌일까..?’ 그리고 확실해지기 위해서 회심집회를 다시 하고 싶어요. 또 설교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



청년부회심집회 후기

이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박영준 청년부
lapepark60@gmail.com



 청년부 회심집회가 3월 31일 저녁,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도, 피로감 때문에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어중간한 마음은 찬양이 시작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백성,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회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심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며, 죄된 옛 자아는 죽은 상태이다. 회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운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는 상태이다.” 회심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고 풍성한 뜻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들과의 나눔 시간에, 내가 기독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해야 하며 생각 없이 들먹이던 회심이라는 단어의 무겁고 중대한 의미가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는 주

일 저녁 피로한 가운데 듣는 두 번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집중력이 돌아왔고 몸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는 호세아 3:1-3을 바탕으로,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이야기의 의미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타인의 사랑을 구하는’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에도 하나님 떠나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저에게,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악행으로 달려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베푸신 은혜를, 제 능력과 몇 가지 우연의 소산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어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큼니다. 이렇게 추악한 저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설교에 나온 대로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는 끝 무렵에 잠시 요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얹어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고 배와 선원들, 바다와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심으로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석사 과정에 입학한 후, 학업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기도·예배·섬김의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대신 채운 것은 교만함과 자괴감이었습니다. 학업에 성취가 있을 때는 한없이 높아지고, 그러지 못할 때는 한없이 낮아지는 상태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자괴감에 사무쳐 괴로워하던 밤,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학업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회심집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석사 과정 전 기간을 사용하셔서 나를 부르고 변화시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 안에 가득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나와 함께했던 나쁜 사고방식과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이번 회심집회 말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들어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운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회심하기를 소망합니다. ☆

초등부_ 3학년 김호유



오늘은 회심집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오긴 왔지만, 별다른 기대감 없이 멍하게 엄마를 따라 왔는데 속으로는 ‘뭐 보나마 무진장 많이 기도하고 늦게 끝나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니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깨달음과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마음이 제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①주님, 주님은 실패한 도시에 사는 실패한 삭개오를 만나셔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삭개오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하오니 저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저도 삭개오처럼 실패한 곳에 실패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죄가 가득한 몸으로 살아가는 아이였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②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 비싼 나드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듯이 저도 저의 마음과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③주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팔아 넘겼지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④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보혈을 모두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제 마음속에 보잘 것 없었던 십자가가 다시 은혜로워지고 감사해져 십자가가 저의 맘속에 태양같이 불타올라 감동을 주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마쳤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며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년부_ 6학년 주하진



어른인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삭개오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기쁘게 만나주신 예수님을 나도 회심집회를 통해 꼭 만나고 싶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십자가에 달린 것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었다.

나는 영아부에서 ‘꼬마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심해야 우리만 영아부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을 거 같았다. 그래서 무릎꿇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내가 맡은 5명의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동생들아 우리 같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자.” ☆

선교학교 후기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이은경 장년5교구
sk95310@hanmail.net

주일날 저녁에, 그것도 하루 종일 예배와 교회학교 섬김, 그리고 구역장 교육을 마친 뒤 지친 몸으로 선교학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교육과정은 거의 다 수료하였는데, 이 선교학교만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인지 자꾸 미루다가 예비 임직자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낯선 이들과의 첫 만남의 어색함을 떨치지 못한 채 참석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첫 강사님이 예전 열린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어서, 반가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해외 선교의 상황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바뀐 것들이 선교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선교 현상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 차에는 정말 반가운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오래전 유아부 교사로 섬길 당시 학부모셨던 정진학 선교사님의 강의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벌어질 충격적인 사회현상과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염려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인구 대비 한국 내

외국인 주민 비율이 4.4%로, 2,258,248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 수치로는 최대 규모이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지키며 선교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현상으로 인해 한국 교회도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는’ 선교 패러다임에서 확장된 의미로,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국내 타 문화권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팀 예배 시간이 있지만 가까워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서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곳, 평촌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다문화가

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없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안양 외곽지대나 경기도 전체를 살펴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담임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자 노력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눈을 돌려 앞으로 다칠 미래를 예견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래전 낯선 이방인으로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타국에서 겪었을 고난과 시련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이웃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타국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있었던 태국선교 보고와 라오스선교 보고는 저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가까운 지체를 통하여 태국선교팀의 기도의 동역자로 참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면서도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를 누려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4주간의 짧은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긴 여정은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소망하며 앞으로 펼쳐질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

2024년 농어촌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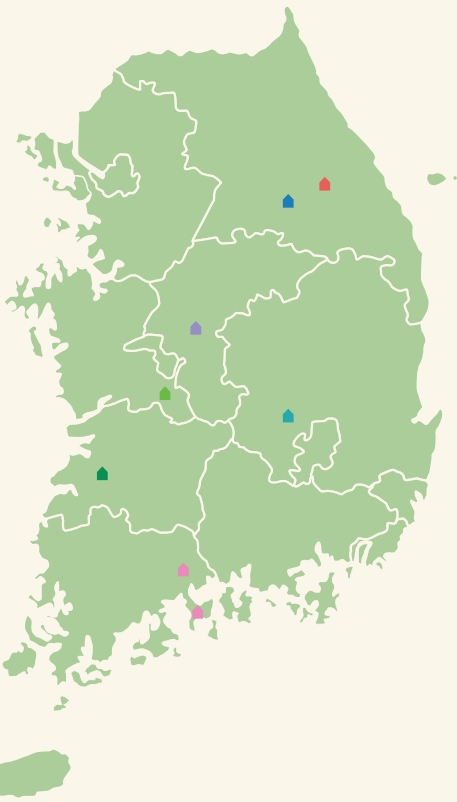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리 어려운데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사건이
전적인 은혜임에 감사했습니다.
생각은 단순해지고, 복음은 선명해졌습니다.”
(열린신문337호 아웃리치 후기 중)

코로나를 지나고 재개된 23년도 농어촌아웃리치에서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단비를 축축히 내리셨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연이어 들려온 지체들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3년마다 교구별 대상 교회가 바뀌기에 올해는 청년4국과 장년 3,5,6교구가 현재 지정된 교회로의 마지막 해입니다. 날짜와 교구별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6월1일(토) ~ 6월 3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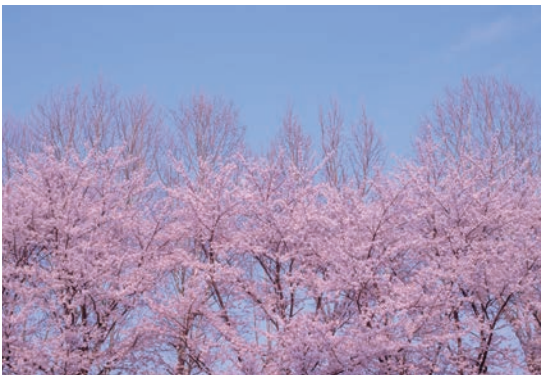
장소

- 장년1교구(전북/부안) 격포중앙교회, 성산교회
- 장년2교구(충남/금산) 대산교회, 길곡교회
- 장년3교구(강원/삼척, 정선) 추동교회, 용산교회
- 장년4교구(경북/성주) 대항사랑교회, 남은교회
- 장년5교구(충북/괴산) 문법교회, 화산교회
- 장년6교구(전남/광양, 고흥) 신항중앙교회, 동강중앙교회
- 청년4국(강원/삼척) 역둔교회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 덧붙임

지난 4월 14일에 발행된 열린신문 <주 바라봄 기도회> 특별호 1면에 소개된 후원자 명단에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로써 40일을 함께한 분들의 인원은 총 47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후원자A(현장 40일): 김명옥 박정혁
후원자C(현장+온라인 40일): 김신은 김정화 남윤아 이인석

주바라봄기도회 후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저는 사업과 교회생활에서 맞닥뜨린 연이은 실패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 40일 주바라봄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IT회사의 폐쇄, 함께 시작한 개척 교회의 폐쇄, 코로나 기간, 그리고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교회의 여러 상황은 제 삶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기도회 첫날,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처럼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를 누리며 살지만 세상향락과 광기로 돌로 스스로를 굽고 있는 나의 모습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왕국을 꿈꾸며 주님을 끝까지 이용하려고만 했던 제자들의 모습까지, 이런 모습들이 제 모습인 것을 매일 새벽마다 발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거니는 것 같았고 이전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아가면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없었던 제 모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절박함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나의 때와 방식으로만 담대히 요구해 왔던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절망으로 치닫지 않게 이 기도회에 불러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바라봄기도회 후기

나의 '갈릴리'에서 계속되는 기도



 저는 지난 30년의 열린교회 역사 중 17년간 열린교회와 함께하며 청년에서 장년으로 자라난 성도입니다. 이번 4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첫째 아들의 어려움으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끝까지 완주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잠실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서울 가는 길이 1시간~1시간 10분 소요되었고 다시 준비해서 직장을 가야하는 어려움도 있었습



변영진 장년6교구
byj1230@gmail.com

이어서 '듣고 삼가 행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며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을 하고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취업할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제 가족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일본인 며느리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세심한 섭리와 저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일 기도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만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기로 다시 결심하면서, 더 이상 외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매일 그렇게만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었고, 이제는 부활 후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처럼, 제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0일간의 경험은 저에게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해답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40일 동안 휴대폰으로 기록한 설교 메모를 다시 보면서 저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은 물론 교회에서조차도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 지체들이 저와 같은 평안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저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무한한 능력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곰곰이 생각

악의 피해자이자 악의 행위자, 나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어린 시절, 악은 늘 외부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휴전선을 보아도 그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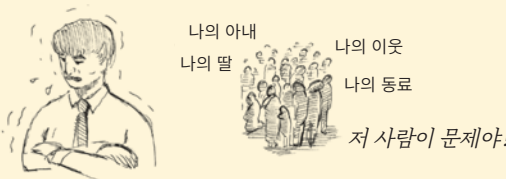
마징가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모든 사람의 외부인 줄 알았습니다. 짝궁을 보아도 그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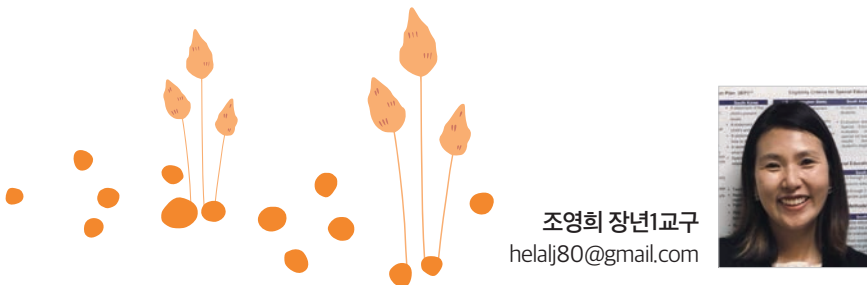
내가 올린 사람들을 보아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의 피해자이지만, 악의 행위자이기도 합니다. 이 딜레마로 아파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씨앗이 내린 적 없는 맨땅입니다.

-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인간, Great Mystery>를 읽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중략)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24절)



조영희 장년1교구
helalj80@gmail.com

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밤 10시에 일이 끝나 집에 오면 11시인데 씻고 애들 준비해주고 자면 12시. 결국 4시간을 자면서 마치 고3처럼 부족한 수면을 이겨내며 기도회에 나가야 하는 일정이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거의 쓰러질 듯 도착한 예배당에서 과연 이 체력으로 기도가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은혜를 장전하고 매일 매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사탄의 방해도 얼마나 많았는지 갑자기 멀쩡하던 차가 새벽기도 오는 중에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뒤에 있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고, 뺑소니 오해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그동안 준비했던 연구재단의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새벽까지 하고 잠시 자거나 졸게 되면 새벽기도를 가지 못할까 봐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에게 허락받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교회로 향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주, 지난 모든 기간 사탄의 방해가 심했기에 이번 주는 더 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뜻하지 않게 감기에 걸려 월요일에 고열과 목이 아파 거의 기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셨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을 저의 삶의 터전, '갈릴리'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게 되었고 넘어진 그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한번 더 나아가는 신앙을 기도회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아들의 다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수많은 기도제목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



내가 낮아지자 가정이 섰습니다

김보경 장년4교구
dietarylif@naver.com



저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이를 미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는 5학년까지 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포함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은혜 속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1년 정도 앞두고 좋은 중학교를 찾던 중 마침 남편도 안양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안양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전학시킨 후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이 전에 다니던 학교 교목님과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할 일이 생길 때면 성경구절을 읽어주시며 말씀으로 지도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아들이 유난히 좋은 크리스천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아이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진지하게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 중 어느 곳이 좋을지 고민하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찾아온 열린교회에서 설교말씀이 좋아서 저희 가족은 열린교회의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이사온 곳이기엔 낯선 곳에 적응도 할겸 교제도 하고 주일에 두세 시간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반, 일대일양육, 성장반, 학습교육, 세례교육, 구역모임을 거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함께 감당한다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이후에 여러 모임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감이나 의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적 이해가 전혀 없는 내가 아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십자가 신앙을 한 번에 깊이 받아들이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아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퇴사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 대해 높은 기준의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하나만 틀려도 속상해 했으며 아이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늘 타인에게 있었기에 아이들의 잘함과 못함에 관계없이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만족 없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큰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딪힘이 잦아졌고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져 갔습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남편의 교육관과도 너무 달라서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행했던 폭언과 거친 행동들을 낱알이 보여주시며 몸서리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를 존중하며 한발짝 뒤에서 거리 두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모든 일과를 스스로 해내며 무한한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놀랍도록 단시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며 저와 늘 대립각을 세우던 아이는 말씀을 좋아하며 저녁마다 필사도 하고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자랐고, 아내와 자식이 최우선순위인 남편과 결혼해서 일상의 대부분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며 살아왔기에 낮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낮은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자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 존중하며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저에게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깨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담임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전도서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손으로 수고하는 것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의 어릴 적 영상들을 보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육아에 짓눌려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재에도 놓치고 있는 행복은 없을까 성찰하며 일상에서의 감사거리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세미나를 다녀온 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저 자신이 설렙니다. 남편 또한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거쳐 구역모임을 하며 최근에는 교회에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식사시간과 자기 전에 기도해주는 남편의 변화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점점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찼던 지난 날과 달리 감사할 일이 넘치는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직 초신자 이기에 신앙의 나태함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휴직장로	김남근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환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우연이나 필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